

OECD 해외직접투자 기준 변경에 대한 외국의 대응 현황 파악

-하병기 선임연구위원(국제산업협력실)

1. 출장자: 하병기 선임연구위원
2. 출장 목적: OECD 해외직접투자 기준 변경에 대한 외국의 대응
현황 파악
3. 출장기간: 2008년 10월 19일 - 10월 25일
4. 출장 지역 및 방문기관: 미국 워싱턴(미상무성 BEA 및 IMF)
및 일본 동경(일본 은행 및 경제산업성)
5. 평가
 - 미국 및 일본의 주요 통계기관은 실무 차원에서는 의욕적으로 BD4
내용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차후 추진 속도를 가
속화할 것으로 판단
 - 이들 국가는 BD3 기준에 따라 통계를 생산하고 있어 BD4에 기준

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함.

- 한국의 경우 BD3 기준에 의한 통계 작성도 다소 뒤쳐져 있는 것으로 판단

○ 우리나라의 경우도 통계 체제 구축 등에 예산 및 인력을 보완하여 직접투자 관련 통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.

○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별첨 참조

<별첨: 면담 내용>

1. 미상무성 BEA(Bureau of Economic Analysis)

□ 면담 일시: 2008년 10월 20일(월) 09:30 - 14:30

□ 통계 생산 체계 관련

○ OECD 및 IMF의 직접투자 통계는 BEA가 전담

○ 투자 통계와 관련한 설문서는 전부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음.

- 다만, 해외직접투자의 최초 신고보고서 서식은 없으며 직원이 언론 등을 통하여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접촉하거나 기업이 직접 신고함.

○ 통계 생산 조직의 자문기구는 없고 BEA 차원의 자문기구가 있으며 주로 output과 관련하여 자문

○ BEA에서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division에는 7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으며, 이 중 10명은 IT, 나머지 65명이 서베이관련 업무

담당

- 해투 분기 및 연간, 외투 분기 및 연간의 4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benchmarking은 연간 담당팀이 수행
- 6명 정도의 economist가 경제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Survey of Current Business에 게재(홈페이지 수록)
- 국제수지를 포함한 국제경제팀은 140명임.

□ 기초 자료 생산

- FDI raw data 수집에서 금융기관망을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제출된 보고서에 근거
 - 설문서 답변서를 기초로 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, 설문서 답변은 online과 offline을 병행함.
 - 언론 등을 통하여 투자기업으로 파악된 기업에게 설문서를 송부하여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누락된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음. 특히,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초기 보고서(투자액 신고서) 형식이 없음.
- 기업이 비답변시는 general counsel을 활용하고 답변 대상기업에서 점차 책임자급으로 대화상대를 변화시킴
 - 조사법(international investment and trade in services survey act)을 적용하여 법정으로 간 적은 없으나 BEA 조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
 - 기업이 신고를 늦게할 경우 변호사 등을 통하여 이 법의 처벌 조

항 등을 종종 문의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 법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

○ 불성실 답변 혹은 오답에 대비하여 답변서의 pre-edit, compile, data converging 등등의 다양한 check과정을 거침.

- check의 경우 manual에 해당하는 guideline에 의해 수정하기도 하나 80% 이상은 답변 기업과의 확인을 거침.

- 기업과의 확인은 편지(편지는 주로 이메일 사용), 전화, 이메일 등을 포함.

-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division의 서베이 업무 종사자 65명의 주된 업무이며, 정보 입력 등은 IT 담당 직원이 관리하는 계약 임시직이 담당

□ 통계 준비

○ OECD BD4 기준으로의 변경에 대한 준비는 아직 못하고 있다는 실무자의 평가임.

- BD4를 상세히 검토하지 않은 단계이고, fellow 기업간 투자 통계는 거의 포기 상태라고 실무자가 밝힘.

- 이와는 달리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division의 장으로 OECD 회의에 참석하는 Obie Whichard는 BD4 일정에 맞추어 제출할 것이라는 의욕을 보임.

○ UIC(BD4에서 UHC는 차후 과제로 넘김)에 의한 투자통계의 경우에도 작성한 바가 있지만 BD4 제출 시한을 맞추지 명확히 하지 않음.

- SPE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서도 아직 검토하지 않은 단계라고 언급
 - BD4는 각국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라고만 언급하고 있는데 실무자는 가이드라인 작업과정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따른 결과라고 평가함.

- 갑자기 어떠한 기업이 해외투자기업으로 부상하는 경우, 예를 들면, 7% voting power에서 특정 해에 10% 이상의 voting power를 확보하는 경우 투자액은 과거 해를 Revision하고 특정 해에 전부 직접투자로 집계함.
 - FDI flow 통계에서 청산시 최종 청산액을 기입하고
 - 3년 정도 revision한다고 언급하고 통계의 한계성과 그리고 국제수지표상의 통계상의 error를 적절히 활용

- 국제직접투자 액은 국제수지 표상의 기재이므로 손기업에 대한 자기기업의 투자는 국제직접투자로 집계되지 않음.
 - 다만, 모기업과 손기업간에 debt가 있을 경우는 국제직접투자로 집계

- 개인의 토지 구매(영업용 만), 건설투자는 직접투자로 집계

- 대기업의 배당 등이 통계 집계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음.
 - 언론 등을 통하여 집계하는데 따른 한계임.

□ 평가 및 시사점

- BEA의 경우 실무자는 BD4의 기한내 적용(2010년 제출)에 회의적인 반면 책임자는 의욕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표명
 - 실무자의 태도로 미루어 준비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
- 미국의 경우 조사법이 있는 반면, 국제직접투자 유무, 배당금 수령 여부 등을 언론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투자 주체 및 투자 행위를 파악하는데 매우 어려운 형편임.
 - 기업의 신고의무보다는 BEA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하는 방식이어서 많은 인원이 작업할 수 밖에 없음.

2. IMF

□ 면담 일시: 2008년 10월 20일(월) 15:00 - 16:30

□ 면담내용

- 다음 달(11월) 중 BPM6가 국제수지위원회를 통과할 예정이고 회원국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데 2-3년이 걸릴 것으로 보면 시행하기에는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판단
- 이에 반해 국제직접투자 부문은 시행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기대
 - 2009년 12월에 끝날 예정인 CDIS(Coordinated Direct Investment Survey)에 130여개국(200여개 회원국 중)이 참여 의사를 밝힘.
 - 직접투자 관련 세미나를 9회 개최하였으며, 지난 7월 말레이시아 세미나에 한국은행도 참가하였음.

- BD4와 BPM6의 국제직접투자 부문은 동일한 내용임.
 - 이 부문은 OECD와 IMF가 공동으로 작업
- BD3의 “consolidated system”은 용어도 잘못 된데다가 개념 자체도 모호하여 BD4에서 FDIR로 개선됨.
 - 투자 통계의 경우 자기기업의 대손기업 투자가 모기업 국가의 국제수지 표에 반영되지 않음.1
 - 소득 계정의 경우 손기업의 reinvested earnings로 자회사에 반영되고 이것이 다시 모기업의 reinvested earning로 집계되어 손기업의 이익이 모기업에 반영됨.
 - FDIR, 즉 지분관계가 변화하면 통계 자체가 변화하므로 매년 upgrading가 필요함.
- M&A 및 SPE 여부는 신고 기업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 담당자가 판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통계 담당자는 답변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.
 - 이는 OECD의 개념임(IMF 직원은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태도를 보임).
- 미국 BEA는 FDIR 등 기업 profile에 관한 자료를 상당 부분 축적하여 fellow 기업간 투자 등의 통계작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IMF 통계팀은 판단하고 있음.
- 캐나다, 호주, 프랑스, 독일, 네덜란드, 일본 등도 직접투자 통계를 상당 정도 확보한 것으로 판단

- 캐나다의 경우 기업 통계와 직접투자 통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business register 하나로 통합하여 통계 작성의 효율화를 도모함.

□ 평가

- 통계작성기관이 아니라 비교 가능한 통계를 확보하려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BD4나 BPM4가 어렵지 않고 많은 국가가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

- 통계 작성에도 M&A나 SPE 통계 작성에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

3. 일본 중앙은행

□ 면담 일시: 2008년 10월 20일 09:30 - 14:30

□ 면담 내용

- 재무성과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, 필요시 경산성 과도 협조

- BD4와 관련하여 Mr. Wada가 3월 이후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고 오고 있음.

- 법률까지도 수정할 계획으로 있으며, 법개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.

- 외환 거래 사후신고제가 현 통계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.

- 직접투자통계와 관련하여서는 대외투자, 대내투자 그리고 Reinvestment of Earnings를 각각 1인이 담당하고 있으며, 다수의 입력자가 있음.
- 자본 거래 신고서를 활용하고 있으며, 분기 및 연차 설문서를 통하여 통계를 작성
- 신고서에서 투자액, 업종, 국가 및 잔액 등이 이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업과의 접촉을 통하여 check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을 수정
 - 매달 3000건 정도를 작업하고 있음.
 - 거래액이 300만엔 이상시 ITRS를 통해 보고
 - online과 offline 양자를 통하여 신고서를 받음.

□ 평가

-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의 경우 흐름 통계 작성에 필요한 통계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
 - fellow 기업간의 투자 통계 등 어려운 분야의 통계에 대해서는 준비작업 중인 것으로 답변하고는 있으나,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
 - wait & see로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됨.

4. 경제산업성

□ 면담 일시: 2008년 10월 24일(금) 14:00 - 15:30

□ 면담 내용

- 영업활동 조사는 1970년 이후부터 시작
 - 다만, BD4는 경산성의 업무가 아니며, OECD 기업환경위원회의 통계 작업반에 생산된 통계를 제공
- 외투 및 해투 영업통계는 현재 3명이 담당하고 있으며, 외주를 통하여 통계를 생산함.
 - 과거에는 외주 업체 10인 정도를 파견하여 시행
 - 최근 2년에는 외주를 줌. (해투의 경우 2000만엔 정도)
 - 제국 data bank라는 회사가 위탁 회사로 지정되어 있는데 동 회사는 10만 개 정도의 기업 DB를 갖고 있는 정보판매회사임.
- 설문서의 Design, 인쇄 및 총괄 관리는 경산성이 하고 설문서 발송, 독촉, check, 입력 등은 외주 업체가 담당
 - 결과물 DB는 기업별로 하여 경산성이 관리함.
- 설문에 필요한 기업 명단은 재무성이 제공하지 않기에 총무처 사무 소기업통계에서 확인하여 대상 기업을 선정
 - 언론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기도 함.
 - 기업명, 본사기업 매출(재무성 자료) 등 확인 된 정보는 미리 인쇄하여 설문서를 답변 기업에 제공

- 금년 조사대상 해외현지법인은 21000개 정도이며, 금융 및 부동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
- 한번 답변한 기업은 계속하여 접촉하여 답변을 요청하며, 전화 등을 꾸준히 하여 회신율을 제고함.
- 설문서의 디자인은 담당자가 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사실장의 결정으로 수정
 - 초기에는 해외투자가 국내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나, 최근에는 부품 수출 및 가공 메카니즘에 관심이 많음.
- 설문 결과 DB는 국가 프로젝트 관련 국립대학교수에게만 제공하였으나, 최근에는 사립대 교수에게도 제공
- 조사는 통계법에 의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함.
 - 기본조사는 동향조사보다 국가별, 그리고 배당 내역 등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요구
 - 현지법인 통계와 공업통계(모기업)의 통합작업을 RIETI에서 수행

□ 평가

- 부처간 업무 분장으로 BD4 준비는 거의 하지 않고 있음.
 - BD4는 투자 흐름 통계이므로 재무성 관할임.

5. 종합 평가

- BD4에 기준한 통계의 경우 통계 요청기관인 IMF는 추진 단계와 가

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반면 BEA와 일본 은행의 경우 추진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

- 통계생산기관의 일부 실무진은 다소 회의적인 평가를 보이기도 하나 정책적인 결정은 설문진의 기대보다는 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

○ 미국과 일본이 국제직접투자 통계 작성에서 앞선 국가라는 점에서 향후 통계 체계 정비에서 benchmarking할 필요는 있음.

- 다만, 미국이 흐름 통계와 영업활동 통계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경산성과 일본 은행으로 분리되어 있고,

- 일본이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통계 작성에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(유럽국가도 비슷), 미국은 자본 거래 신고 의무가 느슨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. ☞